

루이스 칸의 '건축의 본질'에 관한 연구 (I)

- 이론과 작품에 나타난 건축본질의 플라톤적 특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권 태 일

(동의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주제어 : 건축의 본질, 역사성, 플라톤, 이원분리, 인과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¹⁾ 미국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의 유명한 이 물음에는, 그가 주장하는 ‘건축의 본질(essence)’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여기서 건축물이 되기 원하는 것이란 그 내부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질서(order)’, 형태(Form)²⁾, ‘기원(beginning)’ 등의 드러냄을 일컫는데, 이것이 곧 그가 말하는 건축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은 이런 속성이 어느 순간의 깨달음(realization)을 통해 감각될 수 있으며,

다시 디자인(design)이라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형태(form)로 실현 된다고 본다.³⁾

이처럼 건축의 본질 탐구를 근간(根幹)으로 삼는 칸의 입장은 동시대의 모더니즘 건축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 그들이 탈-역사적인 추상형태를 향하여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외면적인 건축의 기능만을 강조한데 반해, 칸 자신은 역사성에 기초한 직관(直觀)적이고 다양한 접근으로 내면적인 ‘건축의 존재본질(存在本質)’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이런 이유로 그동안 칸을 ‘탈-모던건축(Post-Modern Architecture)’의 선구자로 간주하거나,⁵⁾ 그가 말한 본질의 근원성에 주목

* 이 논문은 2009년 동의대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09AA142)

1) “What does the building want to be?”, Edited by Robert Twombly, *Louis Kahn: Essential Texts*, W. W. Norton & Company, p.17, 2003.

2) 칸이 말하는 ‘형태(Form)’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물의 외곽선을 가리키는 형태(form)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form을 존재케 하는 보다 선험적 차원의 ‘선(先)-형태(pre-form)’라는 의미를 지칭한다. Louis I. Kahn, *Form and Design*, 앞의 책 pp.62-74, 1960

3) 앞의 책, 같은 쪽

4) 칸은 1959년 Otterloo에서 개최된 CIAM회의 강연에서 건축과 도시의 20세기 모더니즘운동에는 그 ‘본질’에 대한 탐구가 배제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Louis I. Kahn, *Talk at the Conclusion of the Otterloo Congress*, 앞의 책 p.35, 1959

5) Introduction by Vincent Scully,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97. pp.8-11. 이외에도 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른바 포스트모던건축가로 불리는 Robert Venturi, Michael Graves, Charles

하여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론(存在論)에 관계 짓는 연구들⁶⁾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칸의 본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롱(David G. De Long), 탐블리(Robert Twombly) 등과 같은 건축역사학자들은 칸이 추구한 ‘건축의 본질’이 절대적인 플라톤(Plato)의 이데아(形相, Idea)에 가깝다고 본다. 그래서 칸을 ‘신-플라톤주의자(neo-Platonist)⁷⁾로 간주한다. 이는 건축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삼되, 절대적인 이상(理想)에 일점지향(一點指向)하는 환원(還元)적 특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선례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찾는 탈-모던건축이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실존(實存, existence)을 성찰하는 하이데거식의 건축논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칸의 여러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와 공간의 강한 중심성과 위계성 또한, 이런 환원적 경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칸을 신-플라톤주의자로 보는 기존

Moore 등도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한다.

6) C. N. Schultz,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 1979.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Spirit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I. Kahn*, Shambhala, 1985. 前田忠直, *ルイス・カーン研究*, 鹿島出版會, 1994.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1995. 등과 대다수의 국내연구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 특히, 국내 학계에서는 칸의 건축철학을 하이데거식으로 해석하려는 데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플라톤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시도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20세기 모더니즘건축이 간과한 건축의 본질을 칸이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키려던 것을, 하이데거가 존재망각의 현대사회로부터 존재본질의 회복을 주장한 존재론적 사유에 관계 짓는다.

7) 여기서의 신플라톤주의자란 철학사(哲學史)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을 건축이론과 작품에서 표현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p.100. p.205. Ed. by Robert Twombly, p.13. p.62. Sarah Williams Goldhagen, *Louis Kahn's Situated 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p.1, 2001.

연구들은 전술한 다른 주장들에 비해 대체로 표층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 대부분은 칸이 사용한 용어의 분석에서 단편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언급하거나, 작품 형태의 일부분을 두고 플라톤 기하학의 특성을 연계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칸의 환원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비교적 간과(看過)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칸의 건축의 본질이 갖는 ‘환원적 특성’을 플라톤 철학의 핵심논리에 기초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현대 건축사(建築史)에서 칸이 접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은 그가 말하는 ‘건축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형도(地形圖)를 그리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런 주장이 칸의 전체모습⁸⁾을 대변할 수는 없으며, 그의 건축적 성취를 폄하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본다.

1-2. 연구의 방법

상기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롱, 탐블리, 그리고 골드헤이건(Sarah Williams Goldhagen)의 주장⁹⁾을 중심으로

8) 칸 연구의 전문가인 Sarah Williams Goldhagen에 따르면 칸의 정체성은 ‘신플라톤주의자’, ‘사회활동가’, ‘구조합리주의자’, ‘보자르식 건축가’, ‘포스트모던 건축의 선구자’, ‘진정한 근대건축가’ 등으로 다양하게 요약되고 있다. Sarah Williams Goldhagen, pp.2-3.

9)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의 앞 저서는 칸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서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Robert Twombly의 앞 저서는 칸의 핵심 어록 대부분을 편집, 정리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Sarah Williams Goldhagen의 앞 저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칸을 철저한 모더니즘 건축가로 파악하는 독창적인 시각이란 점에서, 각각 칸 연구의 주요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칸을 신플라톤주의자로 간주하는 특성이 발견된다. 이 외에 C. N. Schultz 또한 앞서 본 그의 글에서 칸의 플라톤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초점이 하이데거식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칸에 대한 신-플라톤적 시각의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 범주는 칸의 강연이나 발표한 글 등의 이론적인 내용과, 주요작품에서 논의대상이 된 부분 등의 실천적인 내용이 다 같이 포함된다. 그 결과 실제로는 기존연구 대부분이 플라톤 사유의 핵심논리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원론적이고 파편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 플라톤 사유와 칸의 본질의 환원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은 '이원분리(二元分離, Binary Opposition)'¹⁰⁾와 '인과율(因果律, Causality)'의 논리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접촉이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칸의 핵심적인 글과 작품에 나타난 플라톤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진술한 기존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피상적인 논리를 단순히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열린 지평에서 복합적인 칸의 '건축의 본질' 문제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해명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¹¹⁾

2. 칸 건축의 플라톤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선행된 칸의 '건축의 본질'의 플라톤적 특성

10) 정확한 용어는 '이원 대립적 분리(二元 對立的 分離)'이나, 편의상 이하 '이원분리'로 표기함.

11) 칸의 '건축의 본질'은 매우 복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 논문에서 본질의 플라톤적 특성을 주제로 그의 주요 어록과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논문에서는 그의 글과 스케치에서 보이는 '건축창작과정'에서의 본질문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연구 될 것이다. 그리고 차 후, 세 번째 논문에서는 칸의 본질을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관계 짓는 기존연구가 비평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리하여 칸이 주장하는 '건축의 본질'의 의미를 입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재조명하고자한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제목에 '(1)'이라는 수(數)식 기호를 부가했다.

에 관한 분석은 이론과 실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론에서는, 각종 강연과 글에서 보이는 건축의 본질의 의미를 주로 플라톤의 이데아가 갖는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속성에 연계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 어디에서도 칸과 플라톤 사유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그 대부분은 칸의 본질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특징을 플라톤적 속성으로 직접 정의하려 하거나,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우회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주로 칸의 작품에 '플라톤 입방체(platonic-solid)'¹²⁾라 불리는 '원형기하학적 형태(archetype geometrical form)'가 표현된 부분을 논제로 삼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기본적인 완전한 기하학적 형태의 표현유무가 주제가 된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접근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칸 작품의 단순한 외형적 비교에 머물면서, 공간이나 형태를 구성하는 내적체계를 플라톤의 기하학적 논리와 연계하는 깊이 있는 탐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론적 주장을 작품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칸을 신-플라톤주의자로 보는 기존입장들은,

12) 플라톤은 정다면체에 매우 특이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저서인 '티마이오스(Timaus, 기원전 350년경)'에서 이 세상이 네 가지 원소, 즉 불, 흙, 물,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가장 가볍고 날카로운 원소인 불은 '정사면체', 가장 안정된 원소인 흙은 '정육면체', 가장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원소인 물은 가장 쉽게 구를 수 있는 '정십이면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팔면체'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마주보는 꼭지 점을 가볍게 잡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쉽게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기의 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십이면체'는 우주 전체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 다섯 가지 기하학적 형태가 '플라톤 입방체'이다. 박종현, 김영균 역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그 논의수준의 피상성으로 인해 건축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 접근을 위해 먼저 플라톤 철학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특징은 ‘이원분리(二元分離, *chorismos*)’와 ‘분유(分有, *methexis*)’와 참여(參與, *parousia*)의 관계’라는 논리로 요약된다.¹³⁾ 여기서 이원분리란 감각의 세계와 사유의 세계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감각의 세계는 가시계(可視界), 즉 가시적인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아래 놓여 있어 항상 변화하는 것들의 세계이다. 이에 반해, 사유의 세계는 인간의 사고(思考)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지계(可知界)를 말하며, 절대 불변의 이상(理想)세계인 이데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의자가 있다’고 하자. 그것은 한편으로 감각의 대상인 가시적인 사물로서의 의자의 존재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자 저 의자가 아닌 모든 의자에 공통된 보편적 성질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인간의 이성(理性)으로만 경험된다는 점에서 가지적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이데아인 것이다.

분유와 참여의 관계란 방금 본 가지계와 가지계의 관계를 뜻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가지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가지계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그 상호간에는 어떤 결합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곧 분유와 참여의 관계인 것이다. 이때에 분유란 가지계의 사물 속에 이미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내재적(內在的)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란 거꾸로, 초월적인 이데아가 원형(原形, *archtype*)으로 간주되어 (그와 분리

된)사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즉 초월적(超越的) 관계를 말한다.¹⁴⁾ 이점에 대해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오로지 그 사물 속에 어떤 식으로든 아름다움 그 자체가 이미 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물이 아름다움 그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네.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움 자체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네.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의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네.¹⁵⁾

요컨대, 모든 가지계의 사물은 가지계의 이데아가 내포되어있거나 혹은 그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존재근거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그 이데아에 의해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데아는 사물의 원인이며 근거인 동시에 원형이 된다. 이는 곧 전자와 후자가 서로 근거되고 근거 짓는 관계, 즉 ‘인과율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되면, 마지막에 가서 모든 존재자들을 근거 짓는 최후의 원인(예를 들어, 신(神)·영혼·불멸하는 것들)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최후의 원인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 전체가 기초 지어 진다는, 이른바 ‘존재-신론적 해석 체계’¹⁶⁾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사유는 일점환원(一點還元)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칸의 건축의 본질에 대한 롱과 탐블리의 플라톤주의적 주장을 보자.

14) 앞글 pp.214-218

15) 플라톤, 「파이돈, 100d」(임재훈, 「플라톤의 수학 교육철학」, 경문사, p.15, 2004. 재인용)

16) 이수정, 박찬국, 「하이데거,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출판부, p.50, 2004.

13) 이강대, 「플라톤의 이데아론 분석」, 정신개벽논집 11호, 신통교학회, pp.207-218, 1992.

칸은 우주를 인간의식에 앞서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자율적인 통일체로 본다.....그는 이상적인 유형(ideal type)을 찾고 디자인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는다.....이런 의미에서 칸은 일종의 현대적 플라톤주의자다.¹⁷⁾

그(칸)가 말하는 질서(order)란 일반적인 의미의 기하학적 중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재(preexisting)하는 플라톤적 이상(ideal)을 뜻하는 것이다.¹⁸⁾

사실, 칸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사물의 본질을 향한 이상적인 건축을 믿었으며, 그가 말한 것들은 “(이상적인)형태(Form)와 (현실적인)디자인(design)”사이의 근원적인 플라톤식 구별로부터 제공되는 것이었다.¹⁹⁾

위의 주장에서, 칸이 추구하는 건축의 본질이란 ‘이상적 유형’, ‘질서’, ‘형태’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플라톤과 관계 짓는 이유는 현실세계와 구분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이상세계, 즉 이데아의 존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현실과 이상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해명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첫 단락의 ‘이상적 유형/인간의식’, 둘째 단락의 ‘질서/기하학적 중첩’, 그리고 셋째 단락에서 보이는 ‘형태/디자인’의 사이에서, 분유와 참여의 관계 혹은 인과율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예를 보자.

그(칸)는 “형태(Form)와 디자인(design)”이라는 글의 처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어떤 주어진 문제에 플라톤적 이미

지가 발견될 때까지 재료들과 부지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 문제는 그에게 있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재료를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상황적이다. 그것은 디자인의 구체적 문제이다..... 강당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그것이 수단에 있는가, 혹은 리오데 자네이로에 있는가 하는 문제 이상의 것이다.”²⁰⁾

여기서 롱은 칸이 말한 ‘이미지/재료 혹은 부지’, ‘강당/수단 혹은 리오데 자네이로’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상적인 목표, 즉 건축의 본질과 현실의 건축물을 구분하고, 그것을 플라톤의 이원론과 관계 짓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분리된 두 세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강당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 재료와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환원성을 갖는 인과적 관계로 못 박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롱의 주장을 보자.

칸은 “순가락과 하나의 순가락, 집과 하나의 집, 학교와 하나의 학교”의 개념에 형태(Form)와 디자인(Design)을 비유하면서 그의 신-플라톤적 시각을 강조했다. “하나의 학교나 구체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학교, 즉 정신적 차원의 학교(라는 개념)이자 존재의지의 본질은 건축가가 그의 디자인에서 구현해야 할 무엇이다.”²¹⁾

“나는 빛을 모든 현존재들의 증여자로서, 물질은 소모된 빛으로 느낀다. 빛은 그림자를 만들며,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이상세계와 일상세계의 구별로 간주한 것은 유명한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동일한 주제를 논한 것에서 유래

17) Robert Twombly, p.13.

18)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p.65.

19) 앞의 책 p.204.

20) 앞의 책 p.100.

21) 앞의 책, 같은 쪽

한다. (그 저서에서의) 우화는 동굴 안에서의 죄수들은 오직 벽에 투영된 그림자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

비록 명쾌하지 않으나, 앞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하나의 학교’, ‘빛은 그림자를 만들며,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 등의 칸의 말에서 이원분리 외에도 인과적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학교와 하나의 학교’는 학교의 본질이자 원형인 이데아와 가시계의 학교 건물의 관계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은 그림자의 존재근거로 작용하며, 그림자는 이미 빛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류와 참여의 관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글의 저자는 그러한 관계성의 구체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학교와 하나의 학교, 혹은 빛과 그림자를 이상세계와 일상세계의 구분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allegory of the cave)’²³⁾와 같은 예시적 주제에 연계시키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칸의 작품을 두고 신-플라톤적 시각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주장들은 주로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기하학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기하학의 대상을 이데아로 생각하였다²⁴⁾고 한다. 그에게 기하학이란 구체적인 가시계의 사물이 아닌, ‘비가시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과 같은 도형개념을 보자.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정의

가 나타내는 ‘보편개념’으로서의 원은 분명 비가시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오성(悟性)의 추론(追論)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의 개념은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참다운 지식(epistême)으로,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이데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런 이데아의 세계는 일의적(一義的)이지 않으며, 어떤 질서를 갖는 계층관계를 이루고 있다. 크게 세 층위로 나뉘는데, 존재와 인식의 궁극적 원천인 최상위층을 ‘선(善)의 이데아’로, 다음은 ‘이성(理性)’중심의 이데아로, 그리고 그 다음은 ‘오성(悟性)’중심의 이데아가 그것이다.²⁵⁾ 그러므로 여기서 논하는 기하학은 인간의 추론적 사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데아의 최하층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가시계 또한 다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서 가시계의 실물이 상단이 되며, 그 그림자가 하단이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앞서 논한 가지계와 가시계의 ‘이원분리’에는 이미 ‘다원(多元)적 위계체제(位階體制)’로 확장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단순하게 이데아와 사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데아들 사이, 사물들 사이에서도 ‘실재(實在, Paradeigma)’에 ‘더 가까운 것’과 ‘덜 가까운 것’의 위계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층의 상호관계에는 앞서 본 ‘인과율의 논리’가 이미 내재하고 있다. 각 층위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층이 다른 층에 뿌리박고 있으며,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위의 층이 보다 참되고 강한 존재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

22) 앞의 책 pp.204-205.

23)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Republic)」, 박종현 역, 서광사, 2005.

24) 임재훈,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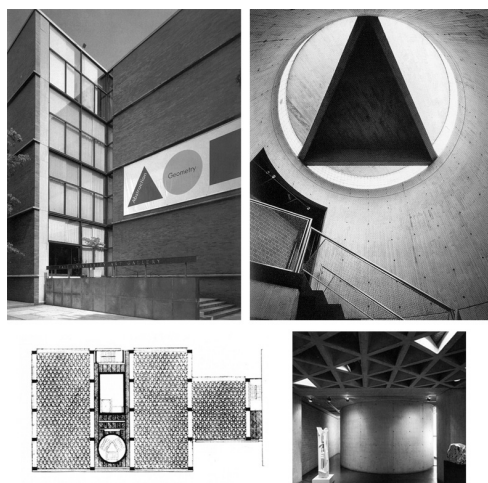
25) 이강대, p.224.

락에서 플라톤은 “어떤 것이 그 위의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통해 생각되어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前提, Hypothesis)’라는 개념”²⁶⁾으로 설명한다.

건축을 예로 보면, 건축의 이데아는 건축 기하학의 존재근거이며, 건축 기하학은 그 하위의 이데아로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가시계의 개별건축물이 갖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에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중심 형태/주변 형태’, ‘내부/외부’, ‘주 공간(served space)/부 공간(servant space)’의 예처럼, 하나의 건축물에서도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이 플라톤 사유의 핵심이며,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칸 작품의 본질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적 분석은 심층적으로 전개된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주장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칸 건축의 독창성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예일대 미술관(Yale University Art Gallery)」에 대한 룽의 주장을 먼저 보자. 이 작품은 외견상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사각박스 형태의 모더니즘건축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형태와 공간의 본질적 측면은 대규모 공간을 지지하기위해 만든 사면체 스페이스 프레임 천정과 삼각형 계단을 내재한 원통형코어에 있다. 여기서 보이는 사면체, 삼각형, 원 등의 기하학적 형태는 플라톤 입방체에 비유되며, 다음 글처럼 종종 칸과 플라톤을 관계 짓는 모티브가 된다.

예일 미술관의 기하학적 질서는 텅 (Anne G. Tyng)의 지속적인 비평을 반영한 것이다. 그녀는 칸이 ‘기하학의 원



<그림 1> L. Kah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New Haven, Conn., 1951-53.

(출처: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97. p.55, 58, 59)

형적 질서’에 대한 의식을 고무시키고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이 미술관은 칸의 경력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보았다. 텅은 칸과 풀러(Buckminster Fuller)의 가교(架橋)역할을 했다. 그들은 1949년에 만났고, 풀러는 (예일 미술관 기하학적 구성을 두고) 플라톤적 입방체의 전체 유형들 사이에서 발견한 중용(中庸)적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고 독창적인 과학적 작품이라 칭찬하면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경했다.²⁷⁾

이글에 따르면, 예일 미술관의 형태는 당시 칸의 공동작업자인 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건축디자인에서 구조적 표현을 중시하는 구조디자인 전문가 풀러와도 그 맥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건축의 본질이 곧 기하학의 원형적 질서임을 주장하며, 그것이 플라톤과 관계 짓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 어디서도 전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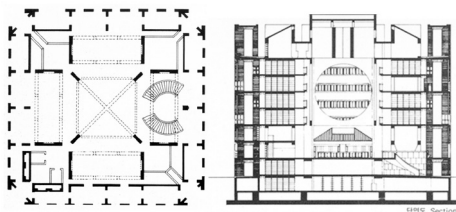
26) 앞글 p.221.

27)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p.60.

플라톤의 기하학 개념과 건축형태의 관계처럼,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를 적용하고 분석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달리 말해, 플라톤을 칸과 관계 짓는 이유는, 단순히 플라톤 입방체와 유사한 기하학적 형상을 미술관의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외형적 유사성 분석에만 초점을 두는 주장을, 형태와 공간구성의 내적체계와 플라톤 기하학의 논리를 연계하여 건축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라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위와 유사한 현상은 칸의 후기 대표작의 하나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Library, Phillips Exeter Academy)」에 대한 골드헤이건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 작품은 내부공간의 위계적 구성과 빛의 상관관계를 탁월하게 표현한 대표적 사례로 간주된다. 이 도서관의 내부는 삼중 도넛(donut)형의 공간위계, 즉 중앙의 중정공간과 그것을 둘러싸는 서고 공간, 그리고 다시 그 주변을 열람실공간으로 두르는, 명확히 층화된 공간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정은 고층창으로 유입된 빛을 보이드(void) 공간 네 벽면의 거대한 원형 개구부를 통해 서고와 열람실에 전달함으로써, 건물 전체를 인식하게 하는 평면과 볼륨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칸에 따르면, “중정은 초대외 장소이자, ... 그 곳에 당도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선택하는 장소이며”²⁸⁾, “몸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²⁹⁾다. 다시 말해, 이 도서관에서 중정은 다양한 동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결절점이며, 도서관건물 전체의 형태와 공간이 갖는 의미



<그림 2> L. Kahn,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Exeter, N.H., 1965-72.

(출처: A+U, November, 1983 Extra Edition, Sarah Williams Goldhagen, *Louis Kahn's Situated 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2001. p.40)

를 파악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곽을 서고와 열람실이 다시 둘러싸면서 위계적인 공간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서관전체의 형태와 공간은 ‘중심/주변’, ‘안/밖’과 같은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로 해석 가능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을 플라톤의 논리와 연계하는 골드헤이건의 주장은 이런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의 주장을 보자.

뉴햄프셔의 엑스터 도서관을 보면, 내부(공간)가 정사각형에 내접한 기하학적 원형(circle)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거대한 벽돌꾸러미 상자이며, (내부 공간) 최상부에는 놀랍고 육중한 X형 교차보주위로 자연채광이 흘러넘친다. (이러한) 칸의 작품은 역사적 선례로부터 유추된 플라톤적 원형의 신비한 형상을 나타내는 ‘형식주의’로 쉽게 읽힌다.³⁰⁾

먼저, 여기서 전체내용을 압축하는 ‘플라톤

28) Louis I. Kahn, *Silence and Light*, ETH Lecture, 1969. p.8.

29) R. S. Wurman,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Access Press and Rizzoli, p.108, 1986

30) Sarah Williams Goldhagen, p.1.

적 원형'과 '형식주의(Fomalism)'의 관계에 주목해보자. 형식주의란 본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자체를 예술의 본질로 보며, 그러한 관계에 의해 표현 혹은 상징되는 내용에는 무관심하다.³¹⁾ 그래서 건축물이 나타내는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기하학적 형태 구성 그 자체에서 표출되는 미(美)를 본질적인 것으로 여긴다. 골드헤이건은 이런 맥락에서 정사각형, 원형(circle) 등의 완전한 기하학적 형상을 플라톤의 원형(archetype)과 연결 짓고, 그러한 형상으로 구성된 도서관의 형태 자체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형식주의와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기의 논리는 전술한 플라톤의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를 내세워 이 도서관의 형태와 공간체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골드헤이건은 플라톤의 원형개념을 단순한 기하학적 원형(archetype)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다시 형태적 측면의 '형식주의'로 이어가는 표피적인 분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서관 공간구성의 내면적인 조직체계와 플라톤의 핵심사유를 연계한 심층적인 분석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칸의 '건축의 본질'의 플라톤적 특성

선행된 분석에서 플라톤의 사유는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로 압축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칸 건축의 본질이 갖는 속성과 접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칸을 신-플라톤주의자로 보는 기존연구 대부분은 이 점을 비켜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한 건축가의 이론 및 작품과, 철학이라는 영역의 논리 사이에 존재하는 외면적 유사성만 보고, 그 내부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째, 왜 플라톤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둘째, 그와 접목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구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러한 물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칸처럼 모던과 포스트모던건축의 접점의 시대를 살아온 경우, 오늘날의 건축현실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대체로 앞의 기존연구들은 이런 심층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첫째와 둘째 물음을 중심으로 칸의 이론과 작품에 나타난 건축의 본질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셋째 물음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결론에서 간략한 언급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는 선에서 정리한다.

먼저 첫째 물음을 놓고 보자. 칸과 플라톤을 관계 짓는 이유는, 무엇보다 존재본질을 향한 사유체계의 유사성에 있다. 플라톤의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는, 존재세계의 본질은 무엇(what)인가를 묻는 '존재론(ontology)'³²⁾과, 그 본질을 어떻게(how) 파악하는가를 묻는 '인식론(epistemology)'³³⁾의 기초가 된다. 앞서 본 것처럼, 그는 존재세계 전체를 본질적인 가지계와 비본질적인 가지계라는 이원적 분리구조로 보며, 그것은 인과율로 파악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칸

31)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pp. 47-48, 2004

32)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 혹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엘리자베스 클레망 외 3인, 「철학사전」, 이정우 역, 동녘, pp. 269-270, 2000.

33) 인식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앞의 책 p.245

또한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한 본질을 건축가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일생의 화두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고유한 건축창작과정의 정립과 작품의 실현을 통해 건축의 본질문제를 지속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수많은 용어와 개념이 동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측정 불가능한 것(unmeasurable)/측정 가능한 것(measurable)’, ‘마음(mind)/두뇌(brain)’, ‘만질 수 없는 것(intangible)/만질 수 있는 것(tangible)’, ‘정신(spirit)/현실(presence)’, ‘Form/Design’, ‘주공간(served space)/부공간(servant space)’, ‘침묵(silence)/빛(light)’, 건축(Architecture)/건축물(A work of architecture) 등이다. 이 용어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원분리의 논리체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자가 후자의 근거이자 본질로서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에서 인과율의 논리와 접목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심층적인 차원의 논리비교에서 칸과 플라톤 사이의 친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여기서의 칸의 글과 작품 중 위에서 말한 플라톤적 특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부분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칸 건축의 본질에서 플라톤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주제로 삼아 논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칸의 어록을 포함한 글과 그의 건축적 특이성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가 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을 논의의 범주로 삼아 그 가능성을 추적한다. 먼저 위에서 말한 용어들의 플라톤적 특성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글들을 보자.

측정 가능한 것은 단지, 측정 불가능한 것의 종속자(a servant)에 지나지 않습니다.³⁴⁾

마음: 측정 불가능한 것의 중심, 비-물질적

두뇌: 측정 가능한 것의 중심, 물질적³⁵⁾
Form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특성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Form은 재료나 모양, 혹은 차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Design은 Form으로부터 나타나는 단하나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재료를 가지며 모양과 차원도 가집니다.³⁶⁾

건축(architecture)은 진리를 구(求)하는 것입니다.³⁷⁾

건축(architecture)은 현실이 아니지만, 정신의 깨달음으로 실존합니다.

건축물(a work of architecture)은 정신의 본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봉납물(奉納物)로 만들어집니다.³⁸⁾

여기서 ‘측정 불가능한 것’, ‘마음’, ‘비-물질적’, ‘Form’, ‘침묵’, ‘건축’ 등은 ‘측정 가능한 것’, ‘두뇌’, ‘물질적’, ‘Design’, ‘빛’, ‘건축물’ 등과 명확한 이원분리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속자’, ‘단하나의 불꽃’, ‘봉납물’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위계적 속성 또한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상기의 글에는 전자가 후자의 근거이자 원형으로 작용하는 인과율의 논리가 이미 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칸은 전자와 같은 위

34) H. Ronner, S. Jhaveri, and A. Vasella,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Institut für Geschichite und Theori der Architektur, Zürich, p.447, 1977.

35) Louis I. Kahn, "Statement on architecture from a talk given at the Politechnico di Milano in January, 1967", *Zodiac*17, p.56, 1967.

36) Alexandra Tyng,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 서유석, 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p.93, 1996.

37) R. S. Wurman,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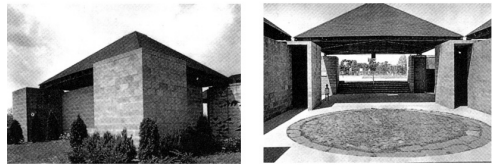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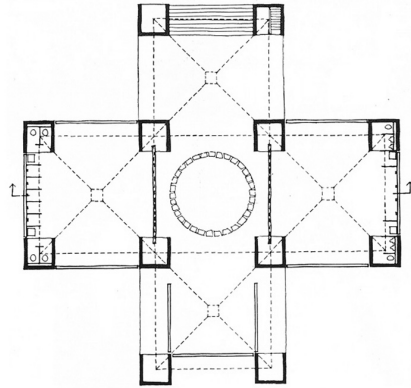
38) Louis I. Kahn, "architecture: silence and light", *Design in Corporating Indian Builder*, vol.16, pp.26-30

계적 우월성을 갖는 것을 건축의 본질이라 하며, '건축물이 되고자 원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근대기능주의 건축은 표피적인 기능만을 중요시하면서, 바로 이 같은 본질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기능주의를 초월한 새로운 건축(new architecture)으로 '측정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³⁹⁾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이론의 범주에서 칸이 주장하는 건축의 본질은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절대적·환원적인 속성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다.

칸의 본질성에 내포된 이 같은 특성은 다양한 작품에서도 표현된다. 대표적인 경향이 '중심/주변', '내부/외부', '주공간/부공간'과 같은 이원분리와 인과율을 갖는 형태와 공간의 조직방식이다. 칸의 작품에서 독창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195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말년인 70년대의 대표작품 중 플라톤적 특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1950년대에 지어진 초기 대표작의 하나인 「트렌톤 목욕장(Trenton Bath House, 그림3)」을 보자.

이 작품의 초점은 이른바 '속빈 기둥(Hollow Column)'⁴⁰⁾과 그에 의한 '주공간/부공간'의 이원적이고 위계적인 구성에 있다. 이것은 차후 칸 작품 전반의 건축적 특성을 규정짓는 핵심주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칸은 건축가 피터 내머스(Peter Namuth)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건물이 '주공간/부공간'이란 개념을 적



<그림 3> L. Kahn, Trenton Bath House, New Jersey, 1955-56

(출처: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p.68)

용한 최초의 작품이자 향후 작업의 생산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피터 내머스: '주공간(served space)'과 '부공간(servant space)'을 구분하여 보여준 최초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루이스 칸: 최초 건물은 '트렌톤 목욕장'이었죠. 이것은 남녀 학생이 옷을 갈아입을 때 따로 사용할 수 있고, 큰 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작은 건물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공간이 분리되면서도 둘러싸고 개방성이 있어서 '주공간'과 '부공간'의 차이가 느껴지도록 했죠. 그리고 이런 용도로 '속빈 기둥'을 고안했습니다. 이로부터 이후의 작품에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힘이 생겼습니다.⁴¹⁾

이 건물의 배치와 구성은 전체영역과 각

39) Alexandra Tyng, p.29.

40) 현대건축에서 재료와 구조기술의 발달로 하중을 지지하면서도 내부가 비워진 기둥을 말한다. 이 빈 곳은 주로 기계설비공간으로 사용된다. 앞의 책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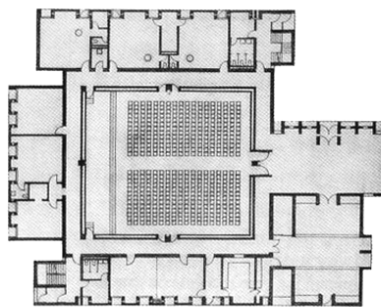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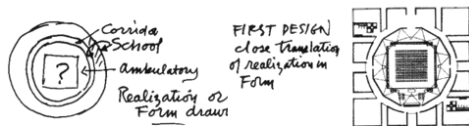
41) 현대건축가 비디오 시리즈 III집, *Louis I. Kahn: An Order of Light*, Product by Michael Blackwood Pro. 1995

단위영역 모두 기하학적, 기능적 위계를 갖도록 계획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하늘이 개방된 사각형 중정(中庭)이 중앙부에 위치하고, 그 네 변을 따라 피라미드형의 지붕을 갖는 개별 실 영역들이 균일하게 연결되어 주변부를 구성하면서, ‘주공간/부공간’, ‘중심/주변’이라는 위계적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네 개의 단위 실들은 진입부와 여러 유형의 목욕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중정은 이러한 기능과 동선들이 모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소통의 장소’로서의 본질적인 공간이 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실 자체도 이 같은 공간구성을 반복한다. 개실은 피라미드형 지붕의 꼭지 점을 중심으로 삼는 정방형 평면으로, 네 모서리에 배치된 속빈 기둥과 함께 ‘주공간/부공간’이라는 위계적 공간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능상으로도 중앙영역은 목욕장의 고유기능을 갖는 주공간이 되며, 속빈 기둥은 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설비 공간 등의 부속기능을 갖는 보조공간이 된다.

요컨대, 중정은 입구와 개별 목욕장의, 다시 각 목욕장은 부속된 탈의실이나 화장실의 본질공간이자 존재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건물에서 중정 없이는 개별 목욕장의 온전한 구성과 기능이 어려우며, 목욕장 없이 탈의실과 화장실만 존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트렌톤 목욕장」은 형태와 공간구성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이, 그리고 다시 그 부분과 더 세부적인 부분(속빈 기둥)이 ‘주공간/부공간’, ‘중심/주변’이라는 다원적 위계체계를 구성하면서 플라톤의 환원적 속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위계라는 말처럼, 중심과 주변공간은 이원적으로 분리되며, 중심공간은 주변공간보다 더 본질적이라 존재근거로 작용



<그림 4> First Unitarian Church, Rochester, New York, 1959-69
(출처: Sarah Williams Goldhagen, plate12, p.149, 152)

하는 인과율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사례와 함께, 작품에서 플라톤적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1959년에 시작된 「제1 유니테리언 교회(First unitarian Church, 그림4)」이다. 칸의 중기 대표작의 하나인 이 건물에서는, ‘중심/주변’이라는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를 공간의 다원적 위계구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칸 건축론의 핵심논리이자, 건축의 본질을 현실 건축물에 표현해내는 추상적 생성원리인 ‘형태(Form)’개념을 시각적으로 규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하다.

이 교회의 공간구성 체계를 최초로 보여주는 것은 '형태(Form)'개념을 시각화 한 스케치인 Form-drawing(그림4, 위좌)이다. 이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스케일과는 무관하게, 교회라는 시설의 고유한 성격, 즉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나 체계를 명시하고 있는 어떤 도식이다. 이것에 따르면, '대형 의문부호(?)'가 표기된 예배당을 중심으로 회랑, 복도, 부속 공간이 다층적인 위계구성을 이루고 있다.

칸이 중심공간인 예배당에 의문부호를 붙인 것은, '질문 던짐'을 신앙체계의 발전수단으로 본 유니테리언 교회의 철학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초의 방', 즉 의식(儀式)의 중심장소인 교회의 본질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그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를 위해 둥근 회랑(ambulatory)을 두고, 그 주위에 회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를 위한 복도(corridor)를 두르며, 이것은 다시 제일 외곽의 담장 공간이 되는 학교(the school)로 둘러싸이게 된다"⁴²⁾고 전체 공간구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대학안의 교회'라는 의미를 자신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도식에 따라 첫 디자인 안(그림4, 위우)이 발전되고, 건축주인 교회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이 조정되면서 최종 계획안(그림4, 중간, 아래)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Form-drawing에서 제시한 개념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

방금 본 것처럼,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공간 구성은 명확히 '중심/주변'의 이원분리체계를 표출한다. 그리고 중심공간인 성소(聖所)와 회랑-복도-부속공간으로 이어지는 강한 다원적 위계의 구성에서 인과율의 개념도 볼 수 있다. 성소는 회랑의, 회랑은 복도의, 그리고

복도는 부속공간의 존재이유가 되므로, 여기서 서로 근거 짓고 근거되는 인과관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1 유니테리언 교회」 또한 플라톤의 환원적 특성을 표현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칸의 후기 주요작품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Sher-e-Banglanagar National Assembly Hall, 그림 5, 6)」을 보자. 이 프로젝트는 법원, 거주단지, 병원, 시장 등과 함께 방글라데시 수도 핵심부를 구성하는 전체 배치계획(master plan)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사당건물 자체뿐 만 아니라, 전체 배치계획에서도 플라톤적 사유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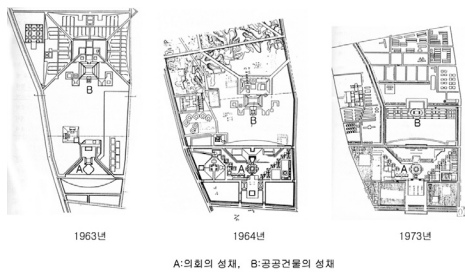
전체 배치계획은 약 1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대지와 방대한 시설규모로 구성되면서 도시계획적 특성도 보여준다. 칸은 도시의 본질을 '재생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는데, 그것이 여기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공동체'라는 이분법의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와 건축의 본질을 향한 칸의 의식 근거에 플라톤 사유의 특성인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배치계획에서 남측에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성소(mosque), 부속시설군 등을 포함하는 의사당 영역이 배치되고, 북측은 학교, 시장, 레크리에이션센터 등을 포함하는 공공건물군 영역으로 분리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한 국가의 수도를 구축하는 주요시설이란 점에서 전체계획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며, 후자는 초기계획에서 "재단과 같은 성격의 의회 주위를 보호하듯 어우르며 절하는 모습"⁴³⁾을 취하며 보조영역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플라톤적 특성을 드러낸다.

42) Alexandra Tyng, p.97.

43) 앞의 책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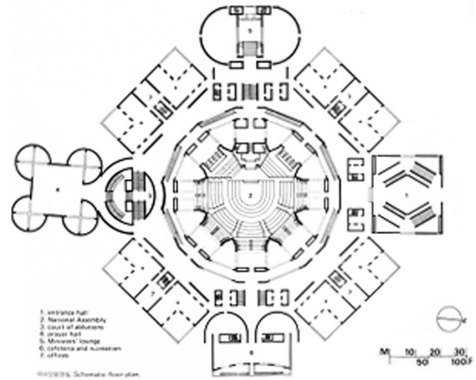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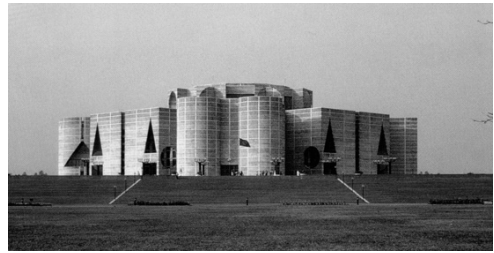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칸은 전자를 도시의 정신적인 면을 구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회회의 성채 (Citadel of the Assembly)’라 불렀으며, 후자를 물리적 측면을 표현한 ‘공공건물의 성채 (Citadel of the Institutions)’라 불렀다.”⁴⁴⁾ 「그림5」는 시간에 따른 전체 배치계획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의회의 성채인 A와 공공건물의 성채인 B의 이원분리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Sher-e-Banglanagar National Assembly Hall Master Plan, Dhaka, Bangladesh, 1962-83 (출처: Alexandra Tyng,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 서유석, 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p.126, 1996)

국회의사당 자체의 형태와 공간구성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이어진다. 의사당의 내부공간 전반에서 ‘중심/주변’으로 분리되는 강한 공간적 위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전체적으로 강한 중심성을 갖는 의회 회의장에서부터 통로공간인 회랑, 그리고 부속 공간들(사무실, 의장실, 휴게실, 출입구, 기도실(모스크))이 다원적 위계체계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본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다층적인 공간구성과도 매우 유사하다.

칸은 중심에 위치한 회의장을 두고 “세계 속의 세계를 만드는 것… 중심부는 회의장이다. … 이곳은 정치인들을 위한 초월적 장소이며 … 의회는 인간의 제도를 세우거나 변



<그림 6> Sher-e-Banglanagar National Assembly Hall, Dacca, Bangladesh, 1962-83 (출처: Sarah Williams Goldhagen, plate17, p.192)

형시킨다.”⁴⁵⁾ 고 말하며, 의회건물의 가장 본질적인 공간으로 본다. 그리고 그는 ‘의회 (assembly)’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 정신적 차원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보아 “입법 공간은 종교적 장소”⁴⁶⁾라 하며, 기도실을 의회건물에 부가하는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다음으로, 회의장과 복도사이에 회랑 (ambulatory)이 위치한다. 이 공간은 부속공간과 회의장을 이어주는 동선공간이자 전이 (轉移)공간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곳은 차단된 육중한 콘크리트 벽으로 높고 좁은 계곡과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상부 천장에서 유입되는 빛으로 그 공간이 다시 강조되면서, 공간 층을 구분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계가 된다. 이처럼 연결과 분리의 이중기능을 담당하는 회랑공간은 본질공간으로서의 회의장과 보

45) David B. Brownlee, David G. De Long, p.111.

46) 앞의 책, 같은 쪽

44) 앞의 책, 같은 쪽

조적인 부속 공간 사이의 중간적 위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ambulatory, Sher-e-Banglanagar National Assembly Hall, Dacca, Bangladesh, 1962-83 (출처: Sarah Williams Goldhagen, plate 24)

회랑의 외곽으로는 사무실과 의장실, 휴게실, 출입구, 기도실 등의 부속공간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은 본질장소인 회의장의 기능을 돕는 공간이며, 회랑에 매개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공간이다. 즉, 사무실과 의장실, 휴게실, 출입구, 기도실 등은 회랑이나 회의장 없이 존재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에서 표현된 형태와 공간의 구성 또한,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라는 플라톤 사유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적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처럼, 칸의 건축의 본질은 분명히 플라톤 철학의 절대적, 환원적 특성과 접목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칸을 신플라톤주의자로 간주한 기존의 연구들도 유사한 맥락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내용 대부분은, 칸이 사용한 용어를 분석하면서 단편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언급하거나, 작품 형태의 일부분을 두고 플라톤 기하학의 특성을 연계하는 데에 그쳤다. 다시 말해, 플라톤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의 사유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부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칸의 환원적 특성에 대한 플라톤식의 심층적인 연구는 간과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주제인 '이원분리와 인과율의 논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칸의 건축의 본질 문제에 접근했다. 그리하여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칸의 본질개념에 함축된 환원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은 칸의 어록, 장원원고, 글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건축적 독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주요 작품에서도 분석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연구결과와 궁극적인 의의는, 피상적인 기존논리를 단순히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열린 지평에서 복합적인 칸의 본질문제를 규명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칸을 플라톤과 관계 지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윤곽을 그려내어, 포괄적인 분석의 토대를 갖추는 데에 정작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칸이 말하는 '건축의 본질'은 전술하였듯이, 결코 단선적인 논리로 해석하기 어려운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잠시 부연하면, 칸의 그러한 경향은 무엇보다 전환기시대를 걸어온 그의 복합적인 여정(旅程)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보자르(Beaux-Arts)식 고전건축에서 모던건축으로, 모던건축에서 다시 포스트모던건축으로 이어진 칸의 길에는 상호 이질적인 여러 흔적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반된 논리에 공속(共屬)하는 복합적인 경향 그 자체가, 곧 칸의 건축철학이 갖는 독

창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앞서 언급한 부분, 즉 칸을 포스트모던 건축가나 하이데거 식 등으로 해석한 여타 주장들 또한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 역시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단선적인 논리로 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 주장들은 이 논문을 읽는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며, 비평적인 시각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칸이 주장하는 ‘건축의 본질’을 입체적이고도 정확하게 해명하는 통합적인 시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때, 근·현대건축사에서 칸이 갖는 의미는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혼돈스런 현대건축의 흐름에서 하나의 꺾대를 세우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엘리자베스 클레망 외 3인, 「철학사전」, 이정우 역, 동녘, 2000.
2. 이강대, 「플라톤의 이데아론 분석」, 정신개벽논집 11호, 신룡교학회, 1992.
3. 이수정, 박찬국, 「하이데거,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대출판부, 2004.
4. 임재훈, 「플라톤의 수학교육철학」, 경문사, 2004.
5.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4.
6. 박종현, 김영균 역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7. 박희영 외, 「플라톤 철학과 그 영향」, 서광사, 2001.
8. 현대건축가 비디오 시리즈 III집, Louis I. Kahn: An Order of Light, Product by Michael Blackwood Pro. 1995.

9. Alexandra Tyng,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 서유석, 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1996.
10. Alexandra Tyng, Beginnings - 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1984.
11. A+U, November, 1983 Extra Edition.
12. Davit B. Brownlee, Davit G. De Long,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97.
13. Edited by Robert Twombly, Louis Kahn: Essential Texts, W. W. Norton & Company, 2003.
14. Louis I. Kahn, architecture; silence and light, Design in Corporating Indian Builder, vol.16
15. Louis I. Kahn: statement on architecture from a talk given at the Politechnico di Milano in January, 1967, Zodiac17, 1967.
16. H. Ronner, S. Jhaveri, and A. Vasella,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Institut für Geschichite und Theori der Architektur, Zürich, 1977.
17. Sarah Williams Goldhagen, Louis Kahn's Situated Modernism, Yale University Press, 2001.
18. R. S. Wurman,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Access Press and Rizzoli, 1986.

A Critical Study on Louis I. Kahn's 'Architectural Essence' (I)

- focused on the analysis of Platonic character in Kahn's
architectural theory and works -

Kweon, Tae-III
(Prof. Dongeui Univ.)

Abstract

Louis I. Kahn is clearly one of 20th century great architects. The character of h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can be condensed as simple words; *Architectural Essence*, because the very nature of his work based on historicity is so fundamental. Some contemporar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critics regard it as a symbol of Post-Modern Architecture era expressing relative multiplicity or an expression of Heideggerian existentialism, but others do as the attribute of fundamentalist like absolute Plato's Idea. Comparing the former, studies of the latter theme have been executed superficially and somewhat biasedly for last decade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 to reanalyze Kahn's idea of 'Architectural Essence' with the deep view of Platonist focused on the concept of binary opposition and causality.

Keywords : Architectural Essence, Historicity, Plato, Binary Opposition, Causality
